

Gazprom, 시가총액 세계3위 등극

5월8일 주가 6% 급등 8조2800억루블 ... 1위 China Mobile에 2위 GE

러시아의 국영 가스기업 Gazprom이 중국 China Mobile과 미국 GE(General Electric)을 제치고 시가총액 세계 3위로 올라섰다.

Gazprom은 5월8일 모스크바 증시에서 주가가 6% 급등해 시가총액이 8조2800억루블(3474억달러)로 불어났다.

반면, 세계 최대의 이동통신기업인 China Mobile은 주가가 1% 하락해 시가총액이 2조6300억HK달러(3373억달러)로 줄었으며, 미국 거대기업인 GE는 1.3% 내려 시가총액이 3250억달러를 기록했다.

Gazprom은 이사장 출신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시가총액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..

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과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비용을 억제하기 위한 러시아의 천연가스 가격 상한선을 완화하는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.

러시아 정부는 천연가스 내수 공급가격을 2011년까지 유럽 수출가격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5/09>